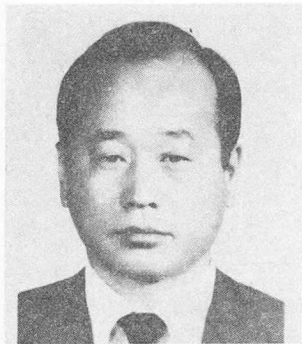


중 소 가 축 과 의 설 치 배 경 과 역 할



이 인 형
(농수산부 중소기업과장)

중소가축과의 설치배경

축산과 관련한 정부조직의 흐름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조정, 변천되어 왔으며, 그 과정은 오래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특히 국민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축산물 수요와 유통이 크게 늘어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1977년 1월에 축산국 내에 가공이용과를 신설, 축산물의 수급과 유통업무를 전담토록 한 바 있다.

그 이후 축산물 수요는 전반적으로 볼 때 2.5배로 늘어났고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도 주곡위주에서 축산물등 고급단백질 섭취로 크게 변하면서 축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금번 농수산부 직제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양축농가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축산국 직제도 다소 조정되는 바 조정된 배경을 보면 과거직제는 가축생산, 수급 및 가격등 축산관계 업무를 기능별로 분장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품목별로 분담토록 하여 업무추진의 능력제고에 치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소가축과의 창설은 역대에 없었던 신설기구로서 이는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정부 관심 외적 분야의 개발을 확대·보강하자는 의지가 뚜렷이 내포되어 있으며, 모든 산업이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 바 그렇게 되어야 분야별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축종별로 업무를 전담토록 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중소가축과가 담당해 나가

게 될 주요업무는

- 중소가축의 개량·증식
- 중소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조절, 수매
방출 및 가격안정시책
- 중소가축의 능력검정 및 종축관리
- 중소가축에 관한 수출입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
- 축산관측 및 유통예고
- 중소가축의 종축생산 및 배부체계 개선
- 중소가축분야 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업무
즉, 소·말을 제외한 중소가축분야 해당업
무를 총괄 추진하게 된다.

중소가축과는 다시 수급계와 관리계로 분
류하고, 수급계에서는 중소가축중 돼지를
중심으로 한 포유동물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다루게 되며, 관리계에서는 닭을 중심으로
한 가금류와 양봉, 모피가축등에 관한 업무
를 관장하게 된다.

중소가축분야 시책방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돈·양계를 제
외한 일부 중소가축분야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부의 관심이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나
오히려 타분야에 비하여 민간차원의 발전이
앞서있는 품목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따라서 과거의 이러한 경과사항을
경험으로 삼아 미비한 분야는 계속 보완·
추진해 나가고, 선진화된 분야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신설 중소가축 분야의
명분을 살려 정립해나가는 한편, 모든업무는
내실을 기하면서 다음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
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개량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향상

둘째, 수급및 가격안정 도모

셋째, 유통구조개선 및 소비증대기반 조성

넷째, 가축별로 특성에 맞게 육성·발전

다섯째, 종축 및 축산물을 수출산업으로
유도

여섯째, 기업농과 부업농의 조화방안 강
구 추진

일곱째, 단체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확
대

이와같은 주요시책외에도 특수가축 즉 사
슴, 면양, 여우, 밍크, 메추리, 애완조류등
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가지 품목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농민부업
소득과 연계 또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
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추진해 나가고자 한
다.

당부사항

중소가축 업무가 축종에 관한 업무를 일
관된 체제로 바뀜에 따라 보다 더 훌륭히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문제등
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농가·학계등 모
든 분야가 고루 발전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노력과 슬기로서 정부와 농가간에 일체감을
가지고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시점임을 감안, 정부시책 추진과
중소가축산업발전에 더욱 협력하여 주시
기를 당부드린다.